한국 학생들의 '배움'의 현주소
-높은 성적과 낮은 학습동기 사이에서-

신지원
테이쿄대학 단기대학

개요 : 본고에서는 OECD 가 실시하고 있는 PISA 조사에서 한국 학생들이 나타내고 있는 높은 학업성적과 낮은 학습동기 사이의 괴리에 주목하여, 학생들의 내적 동기와 흥미를 동반한 진정한 배움을 저해하는 요인을 교사와 학생의 배움을 둘러싼 상황, 경쟁주의를 강화하는 교육정책, 가정과 학교를 중심으로한 경쟁과 강요의 학습문화 등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성과주의만을 중시한 '무작정 공부하는 문화', 대입을 위해 청소년임을 유예하는 문화'를 지양하고, 학습내용을 매개로 학습자 자신과 주위의 사람들과의 대화를 중심으로한 의미있는 학습으로의 전환이 한국의 가정과 학교에서 일어나야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키워드: PISA;학력, 학습자 문화; 경쟁주의

A Consideration on The Results of PISA and Korean Students' Learning: Focusing on The Gap Between The High Academic Performances and Low Interest and Motivation

Jiwon Shin
Teikyo University Junior College, Japan

Abstract: *In this paper, I pay attention to the gap between the high academic performances and low interest and motivation of Korean Students in the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There seem to be obstacles for students' authentic learning in Korean contexts: lack of full dialogue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in classrooms, educational policies that strengthen competition among students, and a learning culture that forces students to study mainly for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s. I suggest the need for changing the restricted concepts of learning, such as "accumulating information and knowledge effectively for good academic performance," and, instead, for creating a learning culture that is based on a rich dialogue between the educational materials, other actors, and learners in Korean schools and home.*
Keywords: *PISA; Academic competency; culture of learners; Competition in school education*

1. PISA 조사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한국과 일본의 온도차[1]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가 3 년 마다 진행하고 있는 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반응을 보고 있으면, 양자 사이에는 미묘한 온도차를 느낄 때가 있다. 먼저 필자가 머물고 있는 일본 쪽의 반응을 보면 PISA 가 개시된 2000 년 및 일본어판 '삶을 위한 지식과 기능 OECD 학생의 학습도달도 조사'가 출판된 2002 년은, 일본 국내에서는 학력저하 논쟁이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시기였다. 2000 년 조사 당시 OECD 가맹 28 개국을 포함한 32 개국의 15 세 학생들 중 일본은 읽기 8 위, 수학 1 위, 과학 2 위라는 높은 성적은 거두었다. 그러나 당시 일본 국내에서는 이 결과를 두고 '핀란드나 한국에 뒤지는 성적'이라고 널리 받아들여져, 당시의 학력저하논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요소로 기능하였다[2].

2000 년 이후 3 년에 한 번 PISA 가 실시되어 그 결과가 공표될 때 마다 일본의 미디어, 학계, 교육현장은 각국의 순위와 전년도와의 비교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듯 하다.

PISA 에 관한 서적도 다량 출판되어 있다. 공적 기관에 의한 평가보고서나 지도서 뿐만 아니라, PISA 형 학력이 어떠한 것이며 그러한 학력을 학생들에게 가지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교수법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하는 각 학회의 특집, 또는 PISA 의 결과가 현저히 높았던 국가 (예를 들어 핀란드)의 교육의 비밀을 탐구하고자하는 연구나 취재, PISA 의 각국에의 영향의 비교연구,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하는 'PISA 형 학력에 강해지는 방법'론을 소개한 책 등, 다채로운 서적 및 보도가 쏟아져 나온다. 이러한 현상은 PISA 가 각계의 높은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물론 한국에서도, PISA 직후에는 결과에 관한 수 많은 보도가 쏟아지며 관련 기관의 평가 보고서 및 교육학계를 중심으로 논문이 발표되어 조사 후 당분간은 주요한 논쟁거리가 된다. 특히 최근 발표된 PISA 2015 에서는 2012 년에 비해 수학 영역의 평균이 30 점 하락하는 등 조사 개시 이래 각 영역의 순위가 가장 낮게 나타난 점에 대해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표명되고 있다.

도표 1 2003 년부터 2015 년까지 PISA 의 한국 학생 순위 추이 (교육부)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 (PISA) 한국 순위					
시행 연도	**2003**	**2006**	**2009**	**2012**	**2015**
읽기	**2**	**1**	**2-4**	**3-5**	**4-9**
수학	**3**	**1-4**	**3-6**	**3-5**	**6-9**
과학	**4**	**7-13**	**4-7**	**5-8**	**9-14**

또한 2015 년 조사에서는 단순히 순위가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학력 하위 수준 학생층이 3 년전보다 두터워진 점 그리고 학력 하위 수준의 학생들의 성취 수준이 이전 조사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다는 점에서 학력의 양극화가 가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 정권의 교육개혁과 최근의 학력조사와의 관련성을 논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면이 있으나, 현재 큰 혼란 속에 있는 박근혜 정권의 교육개혁이 실패한 결과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3]. 따라서 금후, PISA 를 둘러싼 한국의 학교교육의 진단과 대책에 대한 논쟁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PISA 를 둘러싼 학술적인 논의 및 미디어에 의한 보도가 활발하며 PISA 제시하는 학력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교교육에서 실천하고자하는 면이 강한 것에 비교한다면 한국에서는 연구자나 평론가 학원 산업 관계자에 의해 집필된 PISA 관련 서적은 그리 많다고 할 수 는

없으며 PISA 형 학력을 증진하기 위한 학교 현장에서의 실천이나 그에 관한 교육행정으로부터의 실질적인 요구도 그렇게 강력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듯 PISA 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한국과 일본의 태도에 차이가 나는 데에는 여러가지 사회적, 교육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한 가지 추론이 가능한 것은, 양국의 '학력관'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데 일본은, '21 세기형 새로운 학력' 및 '미래형 학력'으로서 어떠한 학력관을 채용할 것인가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를 계속해 왔다. 일본은 입시 등을 목표로한 '지식량 편중 교육'의 한계를 인정하고 1980 년도부터 2002 년도까지는 창조력이나 사고력을 중시하는 '신학력관' 및 '삶의 역량 (生きる力)'을 키워드로 한 '유토리 교육 (ゆとり教育)'을 학교교육의 중점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2003 년 PISA 및 TIMSS 등 국제학력조사를 위시하여 일본 학생들의 학력저하 등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2008 년을 즈음하여 유토리 교육에서 과학, 수학을 중심으로한 지식중심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학력관을 가미하는 방향으로 학력관의 방향을 수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가 제시하는 학력관을 포함하여 학교교육에서는 미래 사회에서 활약할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학력관에 대한 명확한 비젼이나 로드맵이 명확하지 않고, 이전의 유토리 교육과의 차이 사이에서 혼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PISA 형 학력은, 많은 교육 관계자들이 납득할만한 미래형 학력관을 제시하며 등장했기에 일본에서는 이를 21 세기 학력의 모델로 제시되는 일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물론 끊임없이 새로운 학력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나 여전히 한국의 교사, 학생, 학부모의 머릿속에 확고히 자리잡고 있는 학력관은, 대학입시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학력에 편중되어 있는 예를 많은 곳에서 볼 수 있다. 새로운 학력관의 공백으로 인해 혼돈을 경험하며, 앞으로의 학력관이 어떠한 것이어야할지 고민하고 방향을 모색하기에는 한국에서는 여전히 대학입시를 위한 학력이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같이 PISA 가 각국의 교육에 가지는 영향력은, 각 지역이 놓여진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상황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낼 것이다. 본고에서는 PISA 에 있어서 한국 학생들이 나타낸 성과에 주목을 하고자 한다. 그러나 성적 그 자체를 분석하거나 타국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PISA 의 결과로부터 읽어낼 수 있는 학생들의 '배움'의 현실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한국 국내에서는 이제까지 PISA 의 결과를 두고 '역시 한국 학생들의 학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는 안도조차 느껴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데 한국 학생들의 배움과 그를 둘러싼 환경에 문제는 없는 것일까.

2. 세계 최고 수준의 학력과 세계 최저 수준의 학습동기를 가지는 한국의 학생들

PISA 에서는 한국의 학생들이 조사 개시 이래 높은 성적을 거두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정책, 교사의 질 등 교육 전반에 있어서 높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은 '성공적인 교육제도'를 갖춘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다[4]. 한국 국내의 PISA 에 대한 일반적인 주목도나 관심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국 정부는 PISA 의 결과분석과 다음 조사에 대한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PISA 의 결과를 참고하여 교육과정 개정, 학교교육의 기반정비, 국가수준 기초학력진단평가의 도입 등 대규모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신속한 대응은 한국 학생의 좋은 성적관도 관련이 있다고 OECD 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교육 전반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평가는 한국 학교교육의 긍정적인 일면이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제적으로 '한국의 교육은 우수하다'고 하는 이러한 의식은 반대로 한국의 학교교육이 가지는 심각한 일면을

보기 힘들게 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한국의 학교교육의 뿌리깊은 경쟁주의적 문화는 교사와 학생 사이, 학생들 사이의 대화적이고 질 높은 학습을 저해하는 것으로, 현재 한국에서는 이러한 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있음에도 PISA 에 의한 학생들의 세계 최고 수준의 성적이나 정책과 교사교육에 대한 높은 평가라는 한국 교육의 일면만이 과대하게 인식되어, 일부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의식이 이제까지의 경쟁주의적인 학교교육을 합리화하고 강화하는 담론으로 기능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된다.

그렇다면 한국의 학교교육의 우수성 뒤에 숨어있는 교사와 학생을 둘러싼 배움의 현실을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살펴보자. 어떤 교사 교실에서의 학생들의 배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2012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만 15 세 학생들은 수학, 읽기, 과학 전 영역에서 최상위 수준의 성취를 보였다. 즉 우리나라는 OECD 34 개국 중에서 수학 1 위 읽기 1-2 위 과학 2-4 위 OECD 회원국을 포함한 전체 65 개국 중에서 수학 3-5 위 읽기 3-5 위 과학 5-8 위로 최상위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이르기까지 성적이 낮은 학생들로부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까지 전문계 고등학교부터 특수목적고에 이르기까지 수업붕괴가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수업 붕괴는 학생들이 단지 배움에 대한 의욕을 상실해 수업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고 있다. 지금 많은 교사들은 학생들이 수업이라는 시간을 통해 교사와 맺는 일체의 관계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당혹해 하고 있다.[5]"

또 다른 교사는 교실 안에서의 교사와 학생간의 대화의 단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 교실은 수많은 말이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 가득 찬 공간이 아니라 공허한 침묵과 소란의 공간이 되었다.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교실을 돌아다니는 일이 많다고 한다. 수업 시간에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교실 바닥을 데굴데굴 굴러다니기도 한다. 교사의 말과 학생의 말은 서로 엇나가는 경우가 많다. 중 고등학교에서는 대부분의 학생이 수업 시간에 엎어져 있다. 잠을 자는 학생들이 태반이고 잠을 자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기력하게 널브러져 있는 경우가 있다. 교사의 말을 듣는 학생이라 해도 수능에 나올 만한 것만 듣는다.[6]"

이들 교사의 말은, 물론 한국의 모든 학교 및 교실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교사의 본업인 수업 속에서 학생들과의 지적, 사회적인 대화가 끊어지고 만 고통을 표현하는 말로서 우리는 이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표현하는 교사들의 말은, 최근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발표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이러한 교사의 말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들이 처한 배움의 현실은 어떠한가. 한국의 학생들은 각종 국제학력조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학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은 행복하다'고 대답한 학생의 비율은 OECD 가맹국 중 최하위로 '학교가 즐겁다'고 대답한 학생은 PISA 조사 참가국 중 최하위이며[7] 또한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의 비율은 전체의 40.3%이었다[8]. 한국의 교사도 학생들도 그 능력을 높이 평가 받고 있으나 매일의 학교생활은 모두가 보람을 느끼고 만족하는 것만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할 수 있다.

3. 학교에서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아이들

아이들의 마음은 왜 학교를 떠났는가. 사회적인 요인으로부터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일부의 아이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아이들이 학교라는 장소에서 빠른 단계부터 타인과의 경쟁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 속에서 패배와 좌절을 맛보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 밝은 전망을 가지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오래 전부터 한국의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이 교육열이야말로 역사 속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현재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요인이이라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현대에 있어서도 부모가 학업 및 학력에 관해 자식에 대해 가지는 기대는 세계 어느나라보다 높다. PISA 조사에서도 자식에게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기를 원하는 부모는 87%로 그 비율은 조사 참가국 중 가장 높은 것이었다. 독일의 32%라는 숫자와는 대조적이기가지 하다. 또한 한국의 부모의 62%는 자식이 30 세 시점에서 관리직이나 전문직을 가지기를 희망한다고 대답하였다[9].

이러한 가정을 기반으로한 교육열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유명 대학에 진학하여 좋은 직장에 들어기가를 원하는 부모의 열망은, 명문대학에의 입학이 마치 학교교육 지상의 목표로 치부되는 한국의 학교문화의 형성과 관계가 있다.

또한 이런 경쟁을 기반으로한 학교문화는 근년 국가의 교육정책에 의해서 제도화, 시스템화 됨으로써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경향은 '경쟁', '효율', '자유' 및 '다양화'를 내건 신자유주의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한 이명박 정권 이후에 심화되었다. 학교교육에 있어서의 경쟁을 전면적으로 긍정하고 학교교육의 계층화를 촉진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교 다양화 정책'이다.

한국의 고등학교는 1973 년 이래로 많은 지역에 있어서 평준화 정책 하에 놓여있다. 그런데 2008 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를 도입,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여 교육과정 운영, 교직원 채용, 학교재정운영에 있어서의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한다고 발표함으로 인해 고등학교 평준화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었다.

자율형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 교육과정이나 재정운영 면에서 재량이 주어짐으로써 점차 새로운 명문 고등학교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평준화 지역인 서울시에서도 명목상으로는 평준화가 유지 되면서도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 간의 격차가 커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고교 다양화 정책'이 초래한 큰 폐해 중 하나는, 일반 고등학교의 교사 및 학생들의 동기가 저하된 데에 있다.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가 등장함으로써 성적 상위에서 중위 학생들이 자율형 사립고에 진학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일반 고등학교는 성적 중위에서 하위의 학생들이 집중하는 고등학교의 서열화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고등학교 평준화가 해체되고 고등학교가 서열화됨으로써 나타난 또 하나의 문제는 학교 선택이 학생의 능력으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이나 교육력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강화된 것이다. 학부모의 경제력이나 교육력이 보다 높은 가정의 학생들 중 많은 부분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나 특별목적 고등학교에 다니는 것이 연구조사에 의해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고등학교 진학에 있어서의 격차의 확대는 학교교육의 공정성이나 공공성의 보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학력 (学力) 혹은 학력(学歴)이라는 자본이 이제는 사회 구성원 누구나가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비해 훨씬 다양한 자원과 전략을 동원할 수 있는 소수'만이 접근 가능한 제한된 가치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학교 시스템에 있어서 사회문화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통해서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10]. 자신의 계층적인 조건과

학교와의 관계를 일찌기 간파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미래를 꿈꾸기에 대해 절망하고 배움의 의미를 상실해 가는 것이다.

4. 세대를 넘어서 재생산되는 경쟁과 강요의 학습문화

현재의 자기자신의 배움의 의미에는 눈을 감고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받고 언제가 있을 대학입시를 위해 무작정 정보를 축적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배움의 유의미한 것이 되기 위해서 지금 학교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물음은 한국의 학교교육이 지금, 진지하게 직면해야할 물음임에 틀림없다. 학습이 자기자신과 자신의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 더 나아가서 멀리에 있는 다른 이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해 의미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학습의 대상 (교재)를 매개로한 학습자 간의 대화와, 학습자 자신의 내적인 음미가 일어나야 한다[11]. 학습의 대상을 중심으로 다른 이와 또 자기자신과 대화적인 실천이 교실 안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실 안에 대등한 인간관계가 생성되어야 한다. 위계질서와 관리, 통제가 관철된 장소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며 귀를 기울이고 대화를 통해 의미를 교류하는 실천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많은 교실에서 경쟁과 강요의 학습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국의 학교풍토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 번 한국의 학생들의 학습의 상황에 눈을 돌려보자. 이미 언급했듯이 한국 학생의 학력은 국제적으로 최상위 수준에 있다. 그 요인 중 하나는 학생들의 긴 학습시간이 있다. OECD 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 학생의 1 주일간의 평균학습시간은 약 49 시간으로 OECD 평균인 33 시간 보다 16 시간 더 길다. 정규 수업시간 이외에도 방과후에 아이들은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의 장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사교육을 받을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도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나 동기는 세계 최하위 이다. 즉 한국 학생들은 학습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흥미와 관심이 낮은데 가장 긴 시간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일부 연구자와 교사는 한국의 아이들의 학습 동기는 가정으로부터 강요된 경우가 많고 아이들 자신에 의한 '왜 배우는가'를 묻는 과정이 결여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한다[12]. 또한 한국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정체성 형성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통상 청소년기에는 아이가 부모에 대한 정서적인 의존으로부터 점점 독립하여 친구 관계의 중요성을 자각하기 시작하는데 비해 한국의 청소년들의 사회화 과정에는 부모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13].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대학입시와 그 결과가 개인의 인생 경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며 입시의 준비과정과 그 결과에 있어서 부모에게 강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한국의 청소년의 많은 부분이 사회의 학력 경쟁 하에서 만들어지는 '성공적인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수용하고 있다고도 말한다. 이 연구에 의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있는 많은 가정에서는 '대학 수험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부모로부터의 칭찬이나 경제적인 지원을 얻을 수' 있으므로 아이들은 부모의 요구를 수용하고 부모에의 의존을 강화해 간다. 그리고 부모의 요구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의 생활을 표방하면서 그들은 학력주의나 경쟁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또 아이들도 부모의 지원을 유효하게 활용한다. 공부를 열심히한 대가로 얻어지는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들은 공부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발산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 문화에 참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연구자는 결론 짓는다. '한국에는 청소년은 없다.'학생'혹은 '어른과 비슷한 존재'가 있을 뿐이다'.

'대학 들어갈 때 까지…'라며 청소년기를 유예하기를 요구하는 부모들도 또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공과 실패를 반복적으로 경험한 당사자들이다. 부모 세대에 있어서의 대학 수험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사회생활에서의 경쟁의 문화로부터 오는 집단적인 피로와 스트레스, 트라우마가 세대를 넘어서 재생산 되고 있는 것이다[14]. 이러한 악순환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끊어가면 좋을 것인가.

5. 성과주의와 경쟁 속에서 잃어버린 것. 그리고 회복을 찾아서- 아이들의 '성과'가 가르쳐 준 것

가정에서 시작되어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높은 성과와 결과를 추구하여 격렬한 경쟁을 촉구하는 문화가 언젠가부터 한국사회의 풍토가 되었다. 이러한 풍토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짧은 시간에 눈부신 결과를 창출한 나라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되돌아 보면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공동화 (空洞化), 즉 텅 빈 채로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밤을 새워 공부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 경쟁에서 지쳐버린, 회복될 수 없이 뒤떨어져버린 이들의 작은 목소리. '학생'은 있고 '아이'는 없는 우리 사회. '학생들'과의 의미있는 대화가 없는 교실에서의 삶에 불안과 피로와 슬픔을 느끼지만 그게 현실이라며 체념한 교사들의 내적 목소리. 그저 앞을 보고 위를 보고 달려온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말로 학교, 교실, 학습, 공부의 의미를 표현하고 다른 이와 그 의미를 나누는 실천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필자가 한국의 여러 학교를 방문하는 중에 만난 에피소드이다. 모든 수업과 일상회화까지도 유창한 영어로 행하는 초난관 중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다.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의 이름만 들어도 다른 이들로부터 '공부 잘하는 학생', '모범생',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초등학교를 졸업한지 얼마 안되어 앳됨이 남아있는 그러나 어른스럽게 단련된 표정을 한 학생에게 장래 꿈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미국의 아이비 리그 대학에 진학하는 것입니다. 한국 대학에는 가기 싫어요. 우리 학교에서 국내 대학에는 공부 못하는 아이들만 가거든요'.

한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을 이 중학생의 말을 듣고 한국의 학교교육의 근본적인 의미를 되물어야 한다는 강한 생각이 들었다. 한국이 사회적, 정치적인 민주화를 달성하고 약 20 년 이상이 경과했다. 이 20 년간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 형성된 타율성을 청산하고 민주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정비하는 기간이었다. 그러나 이 20 년간 한국사회와 한국인 그리고 한국의 학교는 글로벌리즘과 자유경쟁 성장신화의 격한 풍랑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보고 대화와 공생의 기반을 찬찬히 쌓아가는 실천을 하는 시간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다. 한국의 15 세 아이들이 PISA 를 통해 보여준 성과로부터 우리는 어떠한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그 높은 성적과 낮은 학습동기의 크나큰 괴리를 매우는 작업에 시급히 착수해야 할 것이다.

---

[1] 이 논문은 졸저 PISA から見えてくる韓国の子どもたちの学びの現状：高い成績と低い学習動機の狭間にあるもの、人間と教育（84）特集 PISA グローバル化する学力競争、pp. 38-45、旬報社、2014 를 번역 및 가필 수정한 것이다.

[2] 志水宏吉・鈴木勇『学力政策の比較社会学－国際編－PISA は各国に何をもたらしたか』、明石書店、2012

[3] 동아일보 사설 박근혜 정부 교육실패 보여준 PISA 성적표, 2016 년 12 월 8 일 동아일보

[4] OECD, *PISA 2012 Results: What Makes Schools Successful? Resources, Policies, and Practices (Volume VI)*, PISA, OECD Publishing, 2013b

[5] 이현영, 학업성취수준은 높은데 수업이 붕괴되고 있다!?, 함께여는 교육 20 호 2014 봄호, p. 28, 함께 여는 교육연구소, 2014
[6] 엄기호,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 따비, p. 38, 2013
[7] OECD, *PISA 2012 Results: Ready to Learn: Students' Engagement, Drive and Self-Beliefs (Volume III)*, PISA, OECD Publishing, 2013a
[8] 학교 밖 아이들, 이젠 행동으로 지원을, 2014 년 2 월 14 일판 헤럴드경제
[9] OECD, *PISA 2012 Results: Ready to Learn: Students' Engagement, Drive and Self-Beliefs (Volume III)*, PISA, OECD Publishing, 2013a
[10] 신명호, 교육과 빈곤: 교육을 통한 빈곤탈출이 어려워지는 이유. 한국도시연구소 엮음. 한국 사회의 신빈곤 (서울: 한울), pp. 208-244, 2006
김용일,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과 초, 중등교육의 미래,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8
[11] 佐藤学『教師というアポリアー反省的実践へ』世織書房, 1998
[12] 조한혜정,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또 하나의문화, 1996
[13] 김은정, 한국 청소년들의 '학생으로서의 정체성' 수용과정, 한국사회학 43 권 2 호, pp. 85-129, 2009
[14] 이수광, 누가 누구를 슬퍼하는가-당대 교육주체의 생의 단상-, 함께 여는 교육 15, 함께 여는 교육연구소, pp. 127-131 , 2010